

# 북스

Books

## 세계사를 바꾼 라이벌들의 쟁투

### 라이벌의 역사

조셉 커민스 지음·송설희 송남주 역

케네디는 말솜씨가 유창하고, 엄청난 부자이며 영화배우처럼 잘 생겼다. 반면 닉슨은 말을 더듬고, 웃기보다는 찌푸리는 일이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1960년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돼 맞붙는다.

간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변 사람과 라이벌 관계에 놓인다. 라이벌은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유아들에게도 나타나며 형제자매 간에서도 발견된다. '만들어진 역사' 등을 낸 미국의 역사 저술 전문가 조셉 커민스의 '라이벌의 역사'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사람과 맞닥뜨린 역사 속 인물들을 추적한다. 책은 세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23쌍의 라이벌을 소개한다.

라이벌은 얼굴만 보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가 아니다. 때론 공존하고, 함께 일을 하기도 한다. '만들어진 역사' 등을 낸 미국의 역사 저술 전문가 조셉 커민스의 '라이벌의 역사'는 공통된 목표를 가진 사람과 맞닥뜨린 역사 속 인물들을 추적한다. 책은 세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23쌍의 라이벌을 소개한다.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한 정치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경쟁을 펼쳐야 했다. 1960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두 사람은 철저하게 상대를 비방한다.

닉슨이 선거 기간 중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고향을 방문해 자신을 제퍼슨과 비유했다. 그러자 케네디는 "제퍼슨은 일식과 월식을 구별할 줄 알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었으며 별관을 축출할 수 있었고 미뉴에트를 춤출 줄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닉슨이 그와 어디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까?"라고 그를 깎아내렸다. 또 자기 친구에게 "닉슨은 더럽고 거짓말쟁이이다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TV 토론에서 시종 땀을 뻘뻘 흘리던 닉슨은 말 잘하고 잘 생긴 케네디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텔레비전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케네디는 충분히 준비했고, 닉슨은 지방 유세하러 다니느라 지치고 힘든 몸길로 카메라 앞에 섰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

케네디는 대통령이 된 후 쿠바 사태를 승리로 이끌어 세계 역사에 영향을 끼쳤고 저격당함으로써 순교자의 이미지가 됐다. 닉슨은 이후 대통령의 꿈을 이루었지만 '워터게이트'로 불명예 퇴진했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사례도 많다. 알렉산드르와 다리우스 3세는 서로 죽이기 위해 수많은



나폴레옹

나폴레옹과 웰링턴의 '워털루 전투'는 대학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라이벌 웰링턴에 패했지만 역사는 나폴레옹을 훨씬 탁월한 군인으로 평가한다.



웰링턴

영사를 뚫고 달려나가 직접 싸웠다.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쫓아낸 후 그의 가족들까지 하나씩 집요하게 죽였다.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지만 가는 길이 달라 갈라서는 경우도 흔하다. 장제석과 모택동은 거대 중국의 미래를 놓고 다투었다. 두 사람은 1934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전역에 걸쳐 백병전을 치렀다. 이들은 중국의 개혁이 순탄하게 진행될수록 극단적 민족주의자였다.

또 이들은 외국과의 강요된 동맹을 불신했으며 강철같은 성격이었고, 자기만이 국가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으며 야망이 컸다.

다만,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한 책에 담다 보니 내용의 밀도는 떨어진다. <말> 글빛남·2만4천500원 /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다만,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한 책에 담다 보니 내용의 밀도는 떨어진다. <말> 글빛남·2만4천500원 /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다만,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한 책에 담다 보니 내용의 밀도는 떨어진다. <말> 글빛남·2만4천500원 /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다만,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한 책에 담다 보니 내용의 밀도는 떨어진다. <말> 글빛남·2만4천500원 /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고대~근대 도굴의 역사

#### '황제의 무덤을 훔치다'

최근 수십 년간 중국에서 도굴당한 무덤은 20만여 개, 그리고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중국 왕후급 무덤의 도굴률은 90% 이상이었다.

중국을 대표하는 고고학 전문가 작가 웨난 등이 고증을 토대로 쓴 '황제의 무덤을 훔치다-중국 도굴의 역사'는 고대부터 근대 초까지 중국 무덤 도굴꾼들과 그들을 막으려는 쪽의 노력, 무덤 주인공들에 얽힌 역사적 사실 등을 박진감 넘치게 기록했다.

저자는 "현대인이 역대 도굴 사건과 인류 자신의 문명을 훼손한 죄악에서 교훈을 얻어, 중국 문명과 세계 문명의 열매를 끝까지 보존할 방법을 함께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들베개·1만4천원> / 김대성기자 bigkim@

### 아주 사적인, 긴 만남

마종기·루시드 폴 지음

가수 루시드 폴(34·보성 조운석)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이라면 안다. 그가 왜 '음유시인'으로 불리는지. 시인 마종기(70)의 시를 읽으면 사람은 안다. 과장하지 않는 그의 시가 얼마나 사람의 가슴을 움직이는 지.

36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이 '아주 사적인, 긴 만남'이라는 책으로 묶어 나왔다. 스위스 로잔에 거주하는 루시드 폴과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마종기 시인을 이어준 건 '편지'였다.

인연은 지난 2007년 8월 24일 루시드 폴이 자신에게 있어 시인의 작품이 어떤 의미인지 수줍은 고백

## 老 시인과 젊은 가수가 나는 54통 편지

이 담긴 편지를 보내면 시작했다. 루시드 폴은 고향 바다가 그리울 때,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울적할 때 시인의 '복해'와 '동생'을 위한 조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털어놓았다.

젊은 가수 루시드폴이 누구인지 몰랐던 노시인은 편지를 새롭게 접한 그의 음악에 귀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렇게 음악이 세월 동안 오간 편지는 모두 54통에 달한다.

두 사람에게는 비슷한 점이 많다. 편지가 오갈 때 두 사람은 모두 '해'에 살고 있었다. 시인과 가수라는 예술가적 삶을 살고 있었으며, 의사와 공학도라는 또 다른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동문화가 마해송의 아들인 마시인은 '의사 시인'으로 유명하다. 195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 후 오하이오 의과 대학 등에서 의사로 재직하다

2002년 은퇴했다.

'오 사랑' '국경의 밤' 등 3장의 음반을 발매한 루시드폴은 스위스 로잔 공대 화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가 연구 성과는 미국에서 특허 출원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책에는 음악과 노래, 시 등 예술과 과학, 일상의 기쁜, 삶의 고된 등 진실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과연, 시인과 가수가 어떻게 만나게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젊은 공학도에게 노시인은 지혜를 빌려주기도 한다.

두 사람의 편지라면 분명 책을 읽고 난 후 음반을, 시집을 다시 꺼내 들게 될 것이다. 두 사람 중 한 명만 알았던 이 둘이나 두 사람에 대한 정보 없이 우연히 책을 접어든 사람들도 그들의 음악과 시의 세계로 빠져들 것이다. (1만2천800원) /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새책

원뿔형 병실="박사가 사랑한 수식" '임신 캘린더' 등의 소설을 쓴 오가와 요코의 단편집.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이었던 표제작 '원뿔형 병실'을 비롯해 카이엔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호랑나비가 부서질 때' '식지 않는 홍차' '다이빙 폴' 등 네 편이 수록됐다. <문학수첩·9천800원>

▲장인=우리 전승 공예를 지켜 낸 이들의 손과 삶을 담은 기록이다. 곡성군 석곡 '길쌈' 장인 김점순 여사를 비롯해 매듭장 최은순, 궁시장 김기원, 유기장 김근수, 소목장 천상원 등 20명을 소개했다. 이들은 1960년대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무형문화재 공예 분야 제1세대로 근대사의 질곡 속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이어온 인물들이다. <현암사·1만8천원>

▲천년의 금서="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소설가 김진명의 신작 장편. 대한민국인국 국호에서 '한(韓)이 과연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핵융합 원자로 제작과 실험을 하는 국제단체에서 일하는 이 정서는 갑자기 숨진 옛 친구 미진의 컴퓨터에서 '역사 기록의 천문학적 진실'이란 파일을 발견하게 된다. <새움·1만800원>

▲CHILD 44=영국 작가 톰 롱 스미스의 데뷔작. 1950년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을 배경으로 국가 안보부 요원 레오가 국가가 옹호하지 않는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을 다룬 소설로, 실존했던 악명 높은 러시아의 살인마 안드레이 차카틸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노블라임·1만3천800원>

▲다른 의견을 가진 권리=신중국가를 건설한 갈팡의 독재와 폭력에 맞서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며 관용을 부르짖은 16세기 인문주의자 카스텔리오의 전기다. 역사에서 잊혀졌던 카스텔리오의 감동적인 싸움을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가 역사의 전면에 부활시켰다. <바오·1만3천원>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노트="하나비" '기쿠지로의 여름' 등으로 세계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일본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의 세상과 삶 이야기. 젊은 시절 택시기사부터 엘리베이터 보이까지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스텝 극장에서 만담을 시작해 희극배우로서 실력을 쌓아 마침내 최고의 위치에 오른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과 독특한 철학을 그대로 담았다. <북스코프·1만2천원>

▲암흑의 대륙=20세기 전반 유럽사는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공산주의라는 세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요약할 수 있다. 영국 출신으로 미국 컬럼비아대 마크 마조워 교수는 "전체주의가 가장 유럽적인 이데올로기"라며 전체주의를 낳았던 유럽 자유민주주의의 뒤를 이 데를 들춰낸다. <후마니타스·2만3천원>

▲열녀의 탄생=일부종사와 삼종지도. 조선은 건국한 남성들은 성리학을 토대로 국가를 완성하려 했다. 부산대 강병관 교수가 조선 건국 후 끊임없이 진행된 '열녀 제작 프로젝트'의 이면을 꼼꼼하게 추적했다. 여성을 열녀로 몰고 간 당시의 이면은 현재 우리의 정체성도 되돌아보게 한다. <들베개·3만8천원>

**KT (주)국민법률경제대**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 법원 부동산 경매정보

공인중개사 : 김행숙 062)351-8240  
경매분석사 H.P 010-7203-1100

구	소재지	면적(㎡)	감정가	최저가
광안동	배관그늘리	112	1억3천5백	9천4백
	미아동	79	6천8백	4천6백
	하남동	85	6천8백	4천4백
	주공4단지	85	6천8백	4천4백
서문동	리안	79	6천	4천2백
	철대동부	112	1억2천8백	8천8백
	철대동중	95	9천8백	6천8백
	철대동남	99	8천	5천9백
남구	주월동	401	5천19백	4천1백
	금정동	105	1억2천8백	8천9백
	금정동	108	6천3백	1억5백
	금정동	105	1억3천	7천2백
북구	리안	105	1억1천	7천7백
	리안	85	7천	4천9백
	리안	89	6천	4천2백
	리안	82	6천	4천
서구	리안	102	9천5백	9천5백
	리안	102	8천4백	8천4백
	리안	102	8천4백	8천4백
	리안	102	8천4백	8천4백
동구	리안	102	8천4백	8천4백
	리안	102	8천4백	8천4백
	리안	102	8천4백	8천4백
	리안	102	8천4백	8천4백
남구	리안	102	8천4백	8천4백
	리안	102	8천4백	8천4백
	리안	102	8천4백	8천4백
	리안	102	8천4백	8천4백